

인생 대화 공식	
10차시	칭찬, 센스있게 주고 받는법

### (1) 처음 만난 상대에 특별한 관심의 말을 건네는 법

[상황 재연]

나 : AI야. 나 좋은 일이 생겼어!

AI : 오 모처럼 밝은데? 무슨 좋은 일이야?

나 : 히히 내가 예전부터 친구한테 소개해달라고 졸랐던 분이 있거든.

그분이랑 드디어 만나기로 했어!!!

AI : 대박! 잘 됐다! 가서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고 와.

나 : 응응. 뭔가 준비를 잘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특히 낮을 가리는 편이잖아.

그래서 궁금한게 있어.

AI : 뭔데 뭔데?

나 :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호감을 얻기 위한 말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

특별한 말을 해주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떨어!!!

AI : 떨어졌다! 그럼 이건 우리 희렌최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 [1] 첫 만남, 부드럽게 말문을 열기 위해 필요한 것

- 첫 만남은 누구에게나 어색하다. 그 중 특히 내가 호감을 얻고 싶은 상대일수록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소개팅이나, 친해지고 싶은 상대처럼 말이다.
- 이때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하다. 이어질 대화의 분위기뿐 아니라 관계의 지속 여부를 결정짓기도 하기 때문.
- 대화를 나눌수록 즐겁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상대가 있는가 하면 대화를 할수록 좋았던 첫인상이 반감되는 상대가 있다. 그만큼 대화는 관계의 물꼬를 터주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 핵심이 된다.
-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리드해야 한다는 심적 압박이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고민이 커진다.
- 그렇다고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아무 말이나 하다 보면 말실수를 하기도 쉽다. 말을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 어색한 첫 만남에서 부드럽게 말문을 여는 기술을 배운 건, 한 방송사에서 인턴 생활을 하던 때였다. 음악 쇼 프로그램의 PD님이 촬영 시작 전 출연진에게 말을 건네던 방식은 이후 내가 PD생활을 하며 출연진을 대하는 좋은 지침이 되었다. PD님은 낮은 소파에 앉아 대기하고 있는 출연진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굽혀 쭈그리고 앉은 뒤 눈을 맞추며 인사를 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건넸다.  
“이번 앨범도 참 좋던데, 잘 듣고 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 이렇게 첫 만남에서 좋은 분위기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비결! 먼저, 눈높이를 맞추며 상대를 배려하는 것, 그리고 특별한 관심이 담긴 말이었다.
- 오늘은 바로 그런 특별한 관심이 담긴 말 중 칭찬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특히 호감을 얻고 싶은 상대라면 칭찬을 잘 하는 방법을 아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

#### [2] 기억에 남는 칭찬하는 법

- 칭찬은 상대에게 관심을 표하고 냉랭한 분위기를 풀어지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칭찬을 잘못했을 경우 역효과를 일으키니 주의해야 한다.

- 특히 외모에 대한 칭찬처럼 평가로 느껴질 수 있거나, 많이 들었던 뻔한 칭찬은 나를 그저 그런 사람 중 하나로 보이게 만들 수 있다.
- “와 김태희씨 정말 예쁘세요!”  
프로그램을 리드하는 연출자가 이런 칭찬을 한다면, 그저 뻔하디 뻔한 많이 들어온 칭찬 중 하나로 상대가 이를 넘길 것이다. 외모에 대한 칭찬을 마르고 닳도록 들어온 연예인에게는 이런류의 칭찬이 그닥 기억에 남지 않을 것. 그저 듣던 말을 또 해주는 사람 중 하나로 보일 수 있다.
- 상대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억지로 짜낸 듯한 아부성 칭찬 역시 마찬가지다. 역시, 가식적으로 느껴져 진정성이 떨어지게 하는 말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그렇다면 어떤 칭찬을 해야 좋은 의도를 전하고, 호감도를 높일 수 있을까? 이를 성공시킨 남자에 대한 잘 알려진 이야기를 소개한다.
-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리엣, 세기의 미녀로 불리는 배우 올리비아 핫세의 첫번째 남편 이야기다.  
올리비아 핫세는 남편과 결혼하게 된 이유를 묻는 인터뷰어에게 자신의 눈 색깔을 물었다. 이에 인터뷰어가 대답하지 못하자 핫세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남자가 내 가슴을 볼 때, 그는 내 질문에 대답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 좋은 칭찬도 이와 같다. 올리비아 핫세의 눈동자 색깔처럼, 타인이 보지 못한 장점을 말할수록 그 칭찬은 더욱 특별하게 와 닿는다.
- 이러한 칭찬을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상대에 대해 피상적이지 않은 구체적인 관심, 특별한 관심이다.
- 앞서 들었던 예시처럼, 외모가 수려한 상대라면 관심이 없어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외모에 대한 찬사가 아닌 상대가 노력해온 결과에 대한 것, 독특한 취미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것처럼.
- 기억에 남는 칭찬을 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상대가 가장 많이 들었을 법한 분야에 대한 칭찬을 피하는 것.
- 이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닌 두번째, 세번째로 떠오르는 장점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것이 좋다. 옷을 잘 입기로 유명한 상대라면 제일 눈에 띄는 패션 센스에 대한 칭찬 대신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보지 못한 칭찬을 해보는 것.
- 예를 들면, 바른 자세라던가, 끊임없는 자기 관리에 대한 칭찬이 더욱 기억에 남을 것.
- 단점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제시했던 방법 하나, 일명 ‘발가락 연막작전’처럼 칭찬도 같은 원리로 해보는 것.
-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칭찬이 아닌, 두, 세 번째로 느껴지는 칭찬을 말해보자.
- 누군가에게 기억에 남는 칭찬을 통해 호감을 얻고 싶은 상황이라면 특별한 관심을 담은 칭찬을 건네 보자.

### [3]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칭찬 & 질문하기

- 다음 중 어떤 질문에 더 대답하고 싶은가?  
“아버님은 무슨 일 하시나?”  
“요즘 재밌게 본 드라마가 뭐가?”
- 분위기를 풀기 위해 악의 없이 던진 질문 중 간혹 어떤 질문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한다. 반면 어떤 질문은 대답하기 위해 고민하는 순간부터 즐거워진다.
- 그 차이는 바로 내가 잘 알고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질문인지 아닌지 이다.
- 사람은 누구나 관심 분야에 대해, 잘 아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즐긴다.
- 주말마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상대라면 맛집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열정을 가지고 말할 것.
- 호감을 얻고 싶은 상대에게 칭찬을 건네고, 이후 즐거운 대화를 이끌어가고 싶다면 상대가 말하고 싶어하는 분야에 대한 칭찬을 건넨 뒤, 해당 분야에 대한 질문, 듣고 싶어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다.
- 예를 들어, 상대가 맛집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면 이를 칭찬하는 것.

“와, 어쩔 그렇게 맛집을 잘 알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곳 몇 군데만 들어도 엄청나게 흥미로워져요.”

- 이렇게 칭찬의 의도를 담아, 간단한 감탄을 표현해도 좋다. 이후 그 분야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면 칭찬과 함께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다.

“마침 가족이 다음달에 생일이라, 혹시 추천해주실만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있을까요?”

- 이런 식으로 질문을 이어가면, 자신이 좋아하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상대가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이렇게 질문은 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배려를 표하는 방법이다.
- 여기서 주의할 점, 질문을 잘못 던지면 오히려 좋은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배경지식이 없는 기초적인 질문을 주의하는 것이 좋다. 상대를 따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
- 게다가 지나친 호구조사처럼 느껴지는 질문 또한 호감을 반감시키는 질문이 될 수 있다.
- 첫 만남에서 호감가는 칭찬과 함께 질문을 끌어내는 사람은 좋은 인터뷰어와 같다.
- 유능한 인터뷰어는 내한한 헐리우드 스타에게 김치를 먹어봤는지, 한국에서 어디를 방문 했는지와 같은 따분한 질문을 지양한다. 대신 그가 갖고 있던 삶의 철학, 그동안 거처온 작품들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진다.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질문이지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묻는다.
- 감동한 스타는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속마음을 꺼내보이고 인터뷰에 진심으로 응하게 되는 것.
- 이렇게 특별한 칭찬과 질문을 건네는 방법은 철저한 사전 준비에 있다.
-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한다면 상대는 고마운 마음이 들 것. 자신과의 대화를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해 온 마음이 느껴진다. 그 마음이 호감으로 이어지는건 시간문제일 것.

## (2) 좋은 칭찬의 기준

### 상황재연

나 : 말이 참 내 의도 같지가 않아..

AI : 그치. 그래서 우리에게 말공부가 필요한거지! 근데 왜, 무슨일 또 있는거지!!

나 : 응응 역시 넌 내 마음을 잘 알아준다?

요즘 칭찬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더라고.

어떤 칭찬은 평가로 느껴질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아님 괜찮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다 보니까.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워.

AI : 그렇구나. 칭찬의 의도 자체는 좋은데, 잘못 말하면 평가로 느껴질수도 있지.

나 : 응. 내가 사실 귀여운 사람을 엄청 좋아하거든.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매력은 귀여움이야.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팀장님께 이렇게 말했거든. “팀장님 볼수록 참 귀여우세요!!!”

AI : 티 팀장님께 그랬다고? 팀장님이 뭐라고 하셨어ㅋㅋㅋ

나 : 팀장님이 순간 어색하게 웃으시더라고. 근데 별로 기분이 썩 좋아보이지 않는거야. 근데 옆에 있던 다른 선배가 그러는거야. “어머 김대리~~ 참 당돌하네.” 순간 아차 싶었어. 어른께 귀엽다는 말이 좀 예의 없는 말이었나? 순간 아차 싶더라고.

AI : 아 그럴 수 있었겠다. 맞아. 어떤 칭찬은 의도와 다르게 평가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하지. 그럼 우리 좋은 칭찬은 어떤건지, 어떻게 해야 나의 좋은 의도를 칭찬을 통해 전할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

## [1] 좋은 칭찬의 기준

- 진심 어린 좋은 칭찬의 기준으로 삼는 말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왕자의 유명한 대사이다.
- 가장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쉽게 말할 수 없다.
- 드러나지 않는 것을 칭찬하려면 상대에 대한 관심, 존중의 마음이 필요해진다. 그렇게 노력을 기울인 만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칭찬에는 진심과 온기가 담긴다.
- 반면 어떤 칭찬은 좀 차갑다. 좋은 의도의 말이었음을 머리로 느껴보려 노력하는 사이, 가슴으로부터 멀어진다.
- 이런 칭찬은 주로, 특별한 관심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 ‘Easy come, easy go’라는 말처럼, 쉽게 할 수 있는 말인 만큼 쉽게 흩어지는 것.
- 사연속 고민이 바로 이런 류의 칭찬에 가깝다. 호의가 있어 칭찬을 건넸지만, 상대가 그 진심이 제대로 닿지 않는 말인 것.
- 물론 칭찬에 인색한 것 보다는 가벼운 칭찬이라도 어투나 표정에 감정을 실어 최선을 다해 좋은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 좋다. 칭찬에 인색한 조직, 환경에서는 개인이 생기를 잃고, 한 사람이 아닌 커다란 시스템 속 부품으로 느껴지기 쉽기 때문.
- 칭찬의 의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좋은 의도를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표현 방식이다.
- 상대가 칭찬을 칭찬으로 느끼지 않는 순간, 칭찬으로서 말의 생명력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 [2] 결과보다 노력 칭찬하기

- 칭찬에 진심을 담고 선의를 전달하고 싶다면 표현에 온기를 실는 것이 좋다.
- 가장 좋은 방법은 눈앞에 보이는 것, 결과에 대한 쉬운 말 대신 바로 상대의 숨은 노력, 과정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것이다.
- 눈에 보이는 성과, 뛰어난 외모, 타고난 재능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것은 대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 “아이고 예쁘게 생겼네.” 지나가다가도 예쁘게 생긴 아기들에게 어른들이 이런 칭찬을 건네는 것처럼.
- 반면 과정과 노력에 대한 칭찬은 상대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관심이 없으면 느낄 수 없고 칭찬의 말이 어려워진다.
- 그렇게 관심과 애정이 담긴 건넨 칭찬에는 따스함이 묻어난다. 그만큼 상대는 자신이 이해 받았다고 느끼며 진심을 느낄 수 있게 된다.
- 보이지 않는 노력이나 과정을 발견하고 칭찬으로 표현하는 것, 관계를 호의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점이 있다. 바로 상대를 칭찬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노력이나 과정을 보려는 노력 속에서 상대에 대한 존경이나 존중의 마음 또한 함께 자라나는 것.
- 애정이 없으면 애초에 어려운 일일 것. 애정이 있더라도, 더 깊어지고 자라날 것이다. 표현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들인 만큼 메시지의 의도 역시 더욱 뚜렷해지는 것. 이렇게 정성을 들인 한마디는 듣는 이에게, 더욱 특별한 기쁨이 된다.
- 타고난 외모, 재능처럼 보여지는 결과가 아닌 노력에 대한 칭찬은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바로 칭찬의 기대 효과 덕분. 칭찬을 들으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더욱 노력하는 심리를 갖고 있다.
- ‘피그말리온 효과’이다. 이런 효과처럼,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칭찬은 개인을 성장하게 하는 촉매제가 된다.
- 반대로 바꿀 수 없는 타고난 능력, 외모에 대한 칭찬이 개인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 칭찬은 누군가의 무의식 속에서 성장을 이뤄내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압박하기도 하기 때문.

- 상대방에게 용기와 에너지를 주고, 기쁨을 주는 말을 하고 싶다면, 상대의 배려심, 열정, 센스, 끈기처럼 칭찬의 분야를 외면이 아닌 내면으로 돌려보자.

### [3] 평가로 느껴지지 않는 칭찬의 조건

- 평가로 느껴지는 칭찬이 있다. 칭찬을 건네는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하려 하지만, 원치 않는 평가를 받았다는 기분엔 썩 유쾌하지 않은 상황처럼 말이다.
- 특히 해석하기에 따라 칭찬이 아닐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칭찬이나 표현은 특히 조심하는 것이 좋다.

ex) “와, 너 진짜 말랐다.”

- 이렇게 ‘말랐다’는 표현은, 살을 빼고자 하는 이에겐 칭찬일 수 있다. 반면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고통스러워하는 이에겐 원치 않았던 평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 평가로 느껴지는 칭찬을 피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의 두 가지를 활용하자.
- ‘감사’와 ‘존경’의 표현.
- 누군가에 대한 고마움, 보이지 않는 노력에 대한 존경심은 평가 없는 칭찬을 만드는 시작이 된다.
- 이를 위해, 먼저 칭찬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상대방에게 고맙거나 존경심이 생기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 이후 말을 매듭지을 때 다음의 표현들을 써보는 것
- 그래서 ‘고맙다’ (감사), ‘멋지다’ (존경) 칭찬의 매듭, 확실하게 지을 수 있게 된다.
- 이렇게 상대의 내면, 노력에 대한 칭찬이지만 어쩐지 평가의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 내가 느낀 상대의 장점, 칭찬하고 싶은 면에 ‘감사’, ‘존경’의 마음을 넣어 바꿔보는 방법을 써보자.
- 예시 속 ‘뛰어나다’라는 평가 대신, ‘고맙다’를 넣어보는 것. 예시처럼 ‘고마움’을 표하면 상대의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나의 마음 또한 전할 수 있다.
- 연장자, 선배에게 칭찬을 하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럴 때 잘못 말할 경우 예의없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 예를 들어 어른에게 “참 귀여우시네요!”라고 말하면 이를 묘하게 받아들이시거나 버릇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다.
- 어른에게 칭찬을 하고 싶다면, 존경심을 담아 표현하자.
- ‘배움’의 표현을 넣어 ‘나도 배우고 싶다’, ‘존경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평가의 뉘앙스를 지우고, 나의 호의를 전할수 있게 된다
- 어른에게 칭찬을 하고 싶을 때, 또 다른 표현은 바로 ‘감사’ 이다.
- 연장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말하는 것. 선배에게 “참 배려심이 있으세요.”라는 말을 평가로 들리겠지만, “항상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칭찬의 핵심 메시지는 담고, 평가의 뉘앙스는 지울 수 있다.
- 연장자에게 칭찬할 때 키워드 존경 / 배움 / 감사 를 기억하자.

### 〈3〉 센스있게 칭찬에 대답하는 법

#### 상황 재연

나 : AI야. 너는 칭찬을 들으면 보통 뭐라고 대답해?

AI : 칭찬 들으면 웃으면서 그러지. 오 고마워요!!! 제가 좀 그래요 하하하하

나 : 넌 참 밝아서 좋겠다..^^ 난 그게 잘 안돼. 칭찬을 넘쪽 받으면 건방져보일 것 같기도 하고. 부끄러워

AI : 아 그렇구나. 그럼 보통 칭찬을 들으면 뭐라고 대답해?

나 : 어휴 아니에요 아니에요!! 라고 손사레를 치는데..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어. 계속 아니라고 하는게 맞나 싶기도 하고.

AI : 그치. 고민일 수 있겠다. 그럼 우리 물어보자. 희렌최님한테! 희렌최님 칭찬을 들었을 때, 센스있게 대답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 [1] 칭찬을 나도 모르게 부정하는 이유

- 자연처럼 칭찬을 들으면 어쩔 줄 몰라하는 경우가 있다.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선 특히 거만해보이지 않는 대답을 해야할 것만 같다. 상대의 칭찬에,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아니에요.”
- 나 역시 사회 초년생 시절 칭찬을 받으면 반사적인 ‘아니오’가 나오는 일이 잦았다. 그런 대답 방식을 고칠 수 있었던 건, 누군가 내 그런 말에 대한 피드백을 준 이후였다.
- 칭찬에 아니라고 답하는 대답이 상대의 말에 대한 거절로 느껴진다는 것. 생각해보니, 겸손하고 싶은 마음과 부끄러움이 만들어낸 대답이었지만 상대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임은 분명했다.

‘칭찬은 나를 부끄럽게 한다. 내 마음 한구석에서 그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

- 아시아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인도의 작가 라빈 드라나드 타고르의 말처럼 칭찬을 부끄럽게 느끼는 이유는 어쩌면 그 말을 듣기를 바랬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을 들켜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려는 무의식이 강한 부정 표현을 불러오는 것처럼 말이다.
- ‘아니에요’는 사실 누구보다 그 말을 듣고 싶었던 나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일 수도 있다.

## [2] 아니에요 대신 감사합니다

- 이렇게 칭찬을 반사해내는 각자만의 이유를 차치하고서라도 칭찬의 말을 기분 좋게 수용하는 표현이 필요한 것만은 분명하다.
- 사전적 의미의 칭찬(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함)이 아닌 칭찬을 제외하면 상대는 대체로 호의를 담은 칭찬의 말을 건네기 마련이다.
- 그런 면에서 “아니에요”는 상대의 호의에 대한 거절 표현이 될 수 있다.
- 이 때 거절 대신 상대의 호의에 대한 감사 인사를 건네면! 어색하지 않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ex) “어쩔 그렇게 목소리가 좋아요? 제가 들은 목소리중에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톤이에요.”  
“감사합니다. 목 관리 잘 해야겠어요.”

-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은 상대의 칭찬을 수용하는 표현이다.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호감의 기류를 상대에게 다시 향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 만약, ‘감사합니다’라는 대답이 상대의 칭찬을 넘쪽 받는 느낌에 어색해진다면, 말 앞에 ‘그렇게 말씀해주셔서’를 덧붙여보자.
-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말한 칭찬의 내용 그 자체를 수용하는 대신, 상대의 말 자체를 인정하는 표현이 된다. 조금 더 겸손한 느낌을 줄 수 있다.
- 갑작스러운 칭찬으로 부끄러울 때, 나는 몰랐던 나의 장점에 대한 칭찬을 처음 들어 바로 공감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좋게 생각해준 상대로 대화의 축을 돌리면 어색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ex) “최 대리, 오늘 프리젠테이션 인상 깊었어. 발표 준비 정말 잘 했던데?”  
“그렇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어색하게 대화가 끝나는 것을 방지하고 싶다면 예시처럼 고마움의 표현 뒤에 앞으로의 각오를 덧붙이는 말도 좋다. 자연스럽게 이후의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

### [3] 모두를 높이는 “덕분입니다”

-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 처럼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표현해주는 사람 역시 이를 발견해내는 능력이 있다. 아무리 귀한 보석도 그 진가를 몰라보는 이에겐 한낱 돌덩이에 불과하기 때문.
- 칭찬에 마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를 떠올려보자. 칭찬을 하는 사람 역시 그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럼 다음의 대답들이 가능해진다.

ex) “영선씨는 정말 일을 끝내주게 잘한단 말이야. 어쩜 이렇게 착착 다 되어있을 수 있지?”  
 “다 지금까지 저를 잘 가르쳐주신 부장님 덕분이지요”

ex) “볼 때마다 감탄했는데 말이야... 어쩜 그렇게 옷을 센스있게 잘 입어?”  
 “그거 알아? 센스있는 사람 눈엔 센스 있는 사람만 보인대.”

- 첫 번째 예시처럼 단순히 그렇게 봐 준게 아닌 나의 능력을 상대의 공으로 돌리는 적극적인 방법도 있다. 이렇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서로가 올라가는 대화가 된다. 호의를 주고 받는 대화가 완성된 것.
- ‘덕분에’를 응용한 두 번째 예시 또한 나의 장점을 알아봐 준 상대의 능력을 함께 칭찬해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면 말을 꺼낸 사람, 받아주는 사람 모두 기분 좋은 대화가 된다.

ex) “예전부터 느꼈는데, 너랑 같이 대화를 나눌수록 기분이 좋아져.”  
 “고마워. 근데 나아말로 너랑 대화하면 그렇게 느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기분?”

ex) “당신 음식은 언제나 꿀맛이야!”  
 “고마워. 당신 요리도 늘 맛있어.”

-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호의를 표하고 싶다면 이렇게 상대의 칭찬을 그대로 받아 토스하는 방법도 좋다.
- 나만 칭찬을 받고 있기 머쓱하다면 그런 훈훈한 머쓱함을 상대에게 돌려주는 것.
- 상대가 던진 칭찬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상대 역시 그렇다는 것을 말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상대에게 호의를 함께 전할 수 있습니다.

### [3] 호의엔 돌리!

- 앞 장에서 좋은 칭찬의 조건을 언급했던 것처럼 평가의 느낌이 배제된 무해한 칭찬을 하고, 또 듣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 하지만 표현이 서툴더라도 적어도 상대의 칭찬에 담긴 호의는 언어 외적인 표정이나 말투, 목소리 톤 등에서 느낄 수 있다.
- 그런 칭찬 속 호의를 어색하지 않고 유쾌하게 받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돌리’를 외치는 것. 바로 한 술 더 뜬 농담을 하는 방법이다.

ex) “저는 선배님만큼 능력있고 따뜻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따 뭐 먹고 싶은거 있어요..? 다 말해봐요!”

ex) “PD님 어제 공개된 영상, 올해 본 것 중 제일 재밌었어요. 이렇게 웃어본 게 처음이라니까요?”

“어머. 방금 하신 말씀, 한 20분 뒤에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안돼요? 다른 분들 전부 출근하고 나서 다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좀 부탁드립니다.”

- 칭찬을 들었을 때 좋은 기분을 이렇게 재치있는 농담을 넣어 대답하는 것. 자연스럽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 물론 처음에는 이러한 농담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성격과 말투에 맞는 나만의 래퍼토리를 몇 가지 만들어 두면 이후 칭찬을 들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뻔뻔하게 유쾌해질 수 있다.